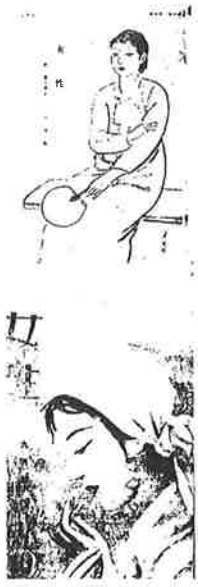
복원되는 문학사, 넓어지는 시야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소명출판, 2002, 8)

안미영

1. 근대여성의 시선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을 소개하기 앞서 '근대여성의 시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자료 사진은 1930년대 종합문예지의 하나인 『女性』의 표지 그림이다. 표지의 두 여인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왼손에 각각 무엇인가를 들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그들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채를 든 여성은 고개를 들고 있으나 그 시선은 비스듬히 땅을 향하고 있으며, 그녀가 앉아있는 벤치는 왼손에 있는 부채와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표지 그림은 '여름날 쉬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꽃을 든 여성은 시선을 포함한 얼굴이 모두 꽃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

락 및 머리를 둘러싼 스카프는 얼굴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더불어 또 하나의 꽃을 묘사하고 있다. 즉 여인의 손에 '향기를 발하는 꽃'은 곧 '향기를 발하는 여인'으로, 나아가 표지 그림은 '향기를 탐닉하는 독자의 시선'이 전제되어 있다. 근대 잡지의 표지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성은 '보는 자'가 아니고 '보여지는 자'라는 사실이며, 이때 '보여지는 자'는 '보는 자'의 눈높이와 의지에 따라 세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경의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은 '여성의 문학적 활동에 관한 역사'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눈으로 새로 보는 문학사'이다. 이 책의 미덕은 근대 한국 여성의 문학적 활동을 복원하고 분석한 데 있다기보다, 문학사 서술방식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시선이다. 요컨데 '보는 자'의 관점에서, 저자는 여성문학을 직시하는가 하면 근대 사회의 정치적 문제를 통찰하고 있다. 정치적 감각을 구비한 '보는 자'의 통찰력은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의 동력이 되고 있다.

2. 근대여성문학의 성과와 한계

이 글에서는 '근대여성문학'에 관한 저자의 연구를 소개해 보겠다. '제2장 여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의 역사와 의의'에서는 근대 여성 잡지를 소개하고, 근대 잡지에 자신의 목소리를 공적으로 드러낸 여자 지식인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최초로 일본과 유럽에 유학한 여성, 윤정원의 글을 통해 초기 여자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보여준다. 아울러, 저자는 초대 여성 잡지 『여자계』의 필진 나혜석과 1920년대 여성잡지 『신여자』를 발행한 김일엽의 글을 통해 본격적인 여권론의 전개양상을 보여준다. 저자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정원이 「본국 제형 제매에게」(『태극학보』제2호, 1906.9)에서 '어머니 · 꽃 · 태양(國民之母 · 社會之花 · 人類之太陽)'이라 하여 여성을 남성사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화기를 주는 보조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나혜석은 「이상적 부인」(『학지광』제3호, 1914.12) 등의

평문에서 여성이 '이상적 부인'에 안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함을 주장한다. 김일엽은 『신여자』의 「창간사」(제1호, 1920.3)에서 "사회를 개조하려면" 궁극적으로 "가정의 주인 될 여자를 해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걸음 나아가 「우리 신여자의 요구와 주장」(『신여자』제2호, 1920.4)에서는 여자들이 기존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새 여자로 개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혜석과 김일엽이 관여한 초기 여성잡지들은 여성의 '자기표현'에 있어서 선구적 발판이 되었으며, 이후 개벽사의 『신여성』(1923.9-1924.4), 동아일보사의 『신가정』(1933.1-1936.9), 조선일보사의 『여성』(1936.4-1940.12) 등 여성 잡지의 선례가 된다. 초기 근대여성이 '자기표현'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발표지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때, 저자가 소개한 '여성 잡지를 비롯한 여성 지식인의 논설'은 그 자체로서 '여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제3장 1920년대 신여성의 다양한 행로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여성 논의가 주로 성적 정체성에 제한된 것과 대조적으로, 저자는 신여성의 사회적 형성과정과 그들의 활약에 관해 논하고 있다. 1920년대에는 학제를 마친 여학생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개시하면서, 그들은 당대인들에게 '신여성'이라는 이색적 존재로 부각된다. 1920년대 신여성이 동시대 남성 작가의 소설에서 의지 박약의 인물로 형상화된 데 반하여, 저자는 당대 신여성이 '간호원' 및 '산파'를 비롯한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적 자아를 구비하고 있었음에 주목한다. 1920년대 신여성의 다양한 행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자는 염상섭의 『사랑과 죄』(『동아일보』, 1927. 8.5-1928.5.4)를 중심으로 여성인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당대 실증적인 기사 내용 및 이기영의 『두만강』(1954-1961)을 중심으로 여자고학생을 소개하고 있어 신여성의 이례적인 면모가 부각된다. 다만, 동시대 동일지에 게재된 나도향의 『환희』(『동아일보』, 1922.11.21-1923.3.21), 염상섭의 『너희는 무엇을 어덧느냐』(『동아일보』, 1923.8.27-1924.2.5), 이광수의 『재생』(『동아일보』, 1924.11.9-1925.9.28)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랑과 죄』의 지순영 · 이해정 · 김운선 · 한희와

같은 긍정적이고 호전(好轉)적인 여성인물과 대조적으로, 염상섭의 『너희는 무엇을 어덧느냐』와 이광수의 『재생』에는 타락한 신여성이, 나도향의 『환희』에는 수동적이고 비극적인 신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을 함께 논의해 본다면 '1920년대 신여성의 다양한 행로'에 관한 좀더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여자고학생의 경우, 1920년대 여자고학생들의 실증적 자료에 비해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된 사례가 없으므로, 저자는 부득이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기영의 『두만강』(1954-1961)을 자료로 삼았는데, 1920년대를 논하는 본 장의 취지에 맞추어 1920년대 작품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7장 나혜석의 여성해방론'에서는 나혜석의 실제 삶과 자전적 수필에 주목하여 나혜석이 펼친 여성해방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양모현처(養母賢妻)의 부정, 모성 신화의 거부, 시험결혼론, 정조관념의 해체 등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여성해방론의 일부라는 점에서, 여성해방론의 선구자로서 나혜석의 의식 조명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다만, 나혜석의 '여성해방론'을 밝힘에 있어 전적으로 나혜석의 생애 및 자서전적 수필에 의지하기 보다 전작(全作)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면, '여성해방론자'에서 한걸음 나아가 '여성해방문학가'로서 그 명성을 문학으로 실현한 문인의 면모가 부각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처녀작 「경희」(『여자계』, 1918.3) 이후의 작품들, 「규원」(『신가정』, 1921.7) · 「원한」(『조선문단』, 1926.4) · 「현숙」(『삼천리』, 1936.12) · 「어머니와 딸」(『삼천리』, 1937.10) 등에는 「경희」에 필적할 만한 여성문학의 면모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작품들이 어떤 점에서 여성문학에 미치지 못하는지 밝혀주는 것도 여성해방론자가 구현한 여성해방문학의 의의와 한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저자는 나혜석을 여성해방론자의 측면에서 강조하다보니 작품보다는 자서전적 수필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여성문학사'의 관점에서, '여성의 경험과 체험'을 공론화하기 위해 여성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개입된 수필을 원용할 경우, 동일한 문학사내 다른 작가들의 작품 범위의 설정 문제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 여성적 글쓰기를 '수필적 글

쓰기' 로 오해할 소지를 남긴다. '고백의 내용' 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문학 양식' 의 경계구분 역시 중요하다. 특히, 작가가 수필과 소설을 구분하여 창작하고 발표할 경우, 연구자 역시 작가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장르에 적합한 분석잣대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8장 강경애와 간도체험' 은 지금까지 저자가 힘써온 강경애 연구(『강경애-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출판부, 1994 ·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1999)의 연장선상에서, '간도체험' 이 강경애의 의식 및 작품 구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한 것이다. 특히, 1932년 용정에서 강경애 부부를 만났던 김경제의 글(「최근의 北滿 情勢」, 삼천리, 1932.7.1)과 강경애와 친분이 있는 고일신의 회고글 발굴은 강경애가 간도로 간 배경 이해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애의 실패와 좌절이 1920년대 후반 강경애로 하여금 간도를 방랑하게 했다면,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인 장하일의 조혼한 아내의 개입은 강경애 부부가 장연을 떠나 인천을 거쳐 간도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를 초래한다. 강경애에게 '간도체험' 은 소녀적 감수성이 사회적 의식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주는 바, 저자의 '강경애 간도체험의 배경에 관한 논의' 는 강경애의 전작 이해에 도움을 준다.

'제9장 임순득,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에서는 '여성' 이라는 자의식을 바탕으로 평론 활동을 한 최초의 인물 임순득을 문학사에 복원하고 있다. 재북(在北) 문인 임순득은 일제 시대에는 신인이었고 해방 후에는 북한에 있었으므로, 작품과 비평 활동에 관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저자는 노촌 이구영 선생의 회고담(『산정에 배를 매고-노촌 이구영 선생의 살아온 이야기』, 개마서원, 1998)속에 나타난 임순득에 관한 자료를 발굴하여, 임순득의 개인사를 복원하고, 임순득의 비평활동과 창작활동을 조명한다. 일제시대 임순득의 비평활동은 '여류문필가' 가 아닌 '여성비평가' 로서 여성주의 비평의 새장을 열었다. 필자의 경우 저자를 통해 임순득의 문학활동을 알게 되었거니와, 저자의 글에 소개된 임순득의 문학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순득은 '여류작가' 는 '여류' 이기 이전에 '작가' 라는

사실(「여류작가의 지위-작가 以前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7.6.30-7.4), 일상성에 함몰한 문단에 대한 비판(「창작과 태도」, 『조선일보』, 1937.10.15-10.20) 및 남성작가를 능가하는 여성 작가, 강경애와 박화성의 창작성과를 밝힌 바 있다(「여류작가 재인식론」). 특히, 임순득은 「拂曉기에 처한 조선 여류작가론」에서 "부인문학"이라는 "그 명목에 상응할 부인문학의 근거"없음을 애석히 여긴다. 저서에 소개된 당대 평문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여성 문인의 "작가적 출발이란 철저히 저널리즘의 일각에 작문, 수필, 기타 잡문 등속인 마치 계절의 화초적인 존재로서 비롯"되었으며 "소박한 독자"에게 "그들의 출품물"은 "이 사람들도 조선 사람인가? 아니면 조선의 여자들인가? 하고, 우리의 생활 감정과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무엇 때문에 이 여자들은 이러한 문장을 농하는 겐가?"하는 의구심만 조장한다. 임순득은 제4차 간도 공산당 사건을 소설속에 끌어들인 강경애의 「어둠」(『여성』, 1937.1-2)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장덕조의 경우 신중한 폄협함으로 · 이선희의 경우 위악으로 · 모윤숙의 경우 미사여구로 · 최정희의 경우 애틋한 하소연으로 동시대의 문제와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해방문학을 지향하는 임순득은 해방이후 「솔밭집」(1947) · 「우정」(1948, 12) · 「딸과 어머니와」(1949, 12) 등의 작품 창작을 통해, '여류작가'가 아닌 '부인작가'로서 그 역할을 직접 실행한다. 이상 소개된 바와 같이, 임순득의 문학 활동에 관한 연구는 여성문학사의 큰 결실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언급한 근대여성문학에 관한 논의 이외, 저자는 현대여성문학의 작품 분석을 싣고 있다. 근대여성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이 글에서는 현대작품에 관한 저자의 논의는 소략하게 언급하겠다. 저자는 현대여성소설가로서 여성성을 탐구한 대표 작가로 박완서와 오정희를 꼽는다. 아울러, 저자는 여성작가의 작품 분석을 통해 여성작가가 경계해야 할 요소로서 '서사성의 약화'와 '통속성의 강화'를 들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작가들이 견지해야 할 창작태도로 '서사성의 강화'와 '사회성의 회복'을 지적할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실현한 작가로서 공선옥와 이혜숙의 작품

을 들고 있는 반면, 신경숙의 경우 '소녀적 감수성'으로 '자기 중심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작가의 사회적 성찰을 요망한다. 여성 작가에 대한 저자의 방향 제시는 독자대중과 문학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어 시사적이다. 그 밖에, 저자는 신예작가 박정애의 소설에서 '모계가족의 가능성'을 읽고 있으며, 한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에 나타난 '대상화된 여성의 문제' 및 '여성의 왜곡된 주체성 형성', '민중의식에 포장된 매춘여성의 소설 형상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저자의 견해는 현대소설을 읽는 독자 및 논하는 연구자들에게 일정한 지침이 되리라 믿는다.

3. 여성문학과 정치적 감각

이상경의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은 총 열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 해당하는 '제1장 한국 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을 제외하고, 전작은 논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시기에 따라, '근대여성문학 작품을 다룬 장'과 '현대여성문학 작품을 다룬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여성문학'을 다룬 장은 다섯 장(제2장 여성의 근대적 자기표현의 역사와 의의 · 제3장 1920년대 신여성의 다양한 행로에 관한 연구 · 제7장 나혜석의 여성해방론 · 제8장 강경애와 간도체험 · 제9장 임순득(任淳得),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여성문학'을 다룬 장은 여덟 장(제4장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탐구 · 제5장 서사성의 약화와 통속성의 강화 · 제6장 1990년대 여성소설의 반성과 전망 · 제10장 소재와 방법의 새로운 모색:공선옥론 · 제11장 마음이 하는 일에 대한 넉넉한 믿음:이혜숙론 · 제12장 자기 중심적 시각과 소녀적 감수성의 세계:신경숙론 · 제13장 새로운 모계가족을 향한 꿈:박정애론 · 제14장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총 열네 개의 장 중 총론격인 1장을 제외하고 다섯 개의 장이 근대문학 작품에 해당하며, 여덟 개의 장이 현대문학 작품에 해당한다.

머리말에서 "우리 근대 여성문학의 전 영역을 아우르지도 못하고 나 스스로 중요하고 꼭 다루고 싶다고 생각한 작가들을 다 다루지도 못했다"는 저자의 언급을 떠올리더라도,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이라는 제명(題名)은 근·현대를 포괄하는 전장의 작가·작품론을 포괄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이라는 제명으로 책을 출간한 데에는 저자가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여성'이라는 자각"의 기원이자 동력을 '근대여성문학'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근대여성문학사론(論)'을 '근대여성문학사'로 완성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軍國)의 어머니」(한국여성연구소편, 『페미니즘연구』제2호, 2002)·「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문학」(『여성문학연구』제8호, 2002)·「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일제 파시즘하의 최정희와 임순득」(『실천문학』, 2003, 봄)은 194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로서, '근대여성문학사'의 종결부에 해당한다. 저자의 완성된 '근대여성문학사'를 고대한다.

근대여성문학은 '식민지'와 '가부장제'라는 두 가지 그늘을 안고 있다. 프란츠 파농(『검은피부, 하얀가면』, 인간사랑, 1998)은 식민지 민중의 심리 기제로 '열등 컴플렉스'와 '의존 컴플렉스'를 지적하고 있거니와, 근대여성문학은 이 두 가지 콤플렉스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열등'과 '의존'을 조장한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에 있다. 근대여성문학에서 열등한 여성과 의존적 여성이 '식민지'라는 현실에서 파생된 것인지, '가부장제'에서 파생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자 모두에서 비롯된 것인지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다. '식민지' 현실만 강조된다면 근대여성의 문제는 '정치·경제' 문제에 종속되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만 강조된다면 '전통' 문제로 축소된다. 근대여성에게 부과된 짐이 전적으로 전통의 탓이라면, 문제는 외부의 적(식민지 현실)에 있지 않고 내부의 적(전통)으로 위장될 수 있다. '식민지화 논리'가 과거와 현재의 단절 및 현재의 퇴보를 조장하고, 퇴보의 원인을 전통의 탓으로 돌리는 데 있다는 아쉬스 난디(『친밀한 적』, 신구문화사, 1993)의 지적을 고려한다면, 근대여성의 문제가 전통

(가부장제)에 있다는 논리는 여성을 비롯한 근대문제 일반은 외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잘못된 전통에서 배태된 것으로 와전될 소지가 있다.

여성해방은 인간해방의 전형(典型)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문학 연구자에게 중요한 덕목은 정치적 감각이다. 1910년대 일제가 『대한매일신보』를 장악하고 『매일신보』로 개칭한 후, 「장한몽」을 비롯한 일련의 신파번안소설을 연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파번안 소설에서 눈물을 자아내는 여성 주인공은 당대 독자들과 동일시되었으며, 여주인공을 둘러싼 미묘한 애정 갈등은 곧 독자의 눈물과 근심으로 치환되었다. 정치적 감각이 배제된 여성문제는 오히려 정치의 노예가 될 우려가 있다. 모성을 비롯한 각종 여성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찰력을 간과한 여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대 정치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층위를 가진 근대여성문학의 대해, 이상경의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은 새로운 자료의 복원 및 정치적 통찰력으로 독자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에게 '보는 자'의 관점을 제공해 준다. 단순히 여성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가 당 시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탐색하는 저자의 연구는 '여성해방의 문학'이 '인간해방의 문학'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 필자 : 경북대 강사 · 문학평론가